

# '89년도 배합사료 생산전망

김치영  
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89년도 배합사료 생산전망

1980년대에 들어 국내배합사료 생산량은 해마다 팔목할만한 급신장을 기록해왔다. 이같은 급성장의 배경에는 대내적인 요인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축산물 소비증가와 축산경영의 전업화추세에 따른 배합사료 이용율의 증가를 들 수 있겠으나, 대외적인 요인으로 지난 '85년이래 지속되어온 배합사료가격하락도 한몫을 해왔다.

그러나 1989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전망은 과거 급성장을 주도했던 대외적 요인이 다소 쇠퇴하면서 과거와는 다소 다른 패턴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즉, 대내적 요인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증가는 속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사료곡물의 저가가 추세는 이제 반전되면서 오히려 배합사료 생산증가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지난 '88년 미국의 대한발로인해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되었고, 이로인해 양축가의 사료가격 부담이 늘고, 사육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8년도부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비육우를 비롯한 대가축의 사육두수도 감소하면서 사료생산증가에 제동을 걸고있다.

이같은 대외적 요인을 감안할때 '89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지난 수년간의 급등세와는 다소 다른 추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서 최근 한국사료협회가 지난 20여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 및 축산물소비추세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통해 '89년도 배합사료수요량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의 급등추세와는 달리 내년도에는 대략 4.9%의 생산증가가 예상되며, 물량적으로는 1,024만톤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계량적 분석결과가 반드시 정확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배합사료 생산증가는 '88년을 기점으로 과거의 급등추세와는 달리 증가추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대내외

적 요인변동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89년도 배합사료 가격전망**

'89년도 배합사료 가격전망을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료곡물시장의 환경여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飼料關聯指標面에서 配合飼料 需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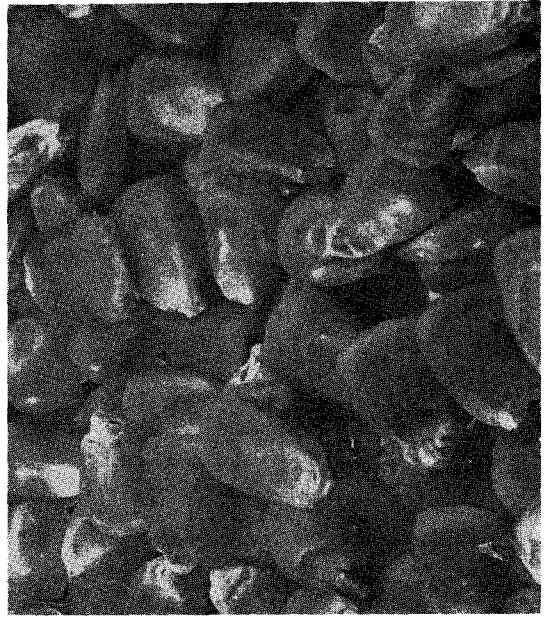
年度	區分	1人當	1人當實質	1人當	1人當	1人當畜産	配合飼料
		G N P	G N P	肉類消費	계란消費	物消費	生産
		千원	千원	kg	個	kg	千 <sup>M</sup> /T
1970							
71		86.2	528.8	5.2	77	9.4	508
72		103.7	568.6	5.2	78	9.4	702
73		124.8	583.2	5.5	84	10.0	776
74		157.1	654.6	5.5	74	9.5	910
75		218.2	697.1	5.8	80	10.1	927
76		285.5	732.1	6.4	83	10.9	901
77		385.9	817.6	6.8	85	11.4	1,382
78		497.7	909.9	8.1	97	13.3	1,899
79		649.1	976.1	10.1	101	15.6	2,693
80		821.8	1,029.8	11.3	111	17.3	3,880
81		965.6	965.6	11.3	119	17.7	3,462
82		1,170.6	1,014.6	10.2	114	16.4	3,491
83		1,296.8	1,053.5	11.2	115	17.4	4,420
84		1,485.2	1,161.2	13.3	124	20.0	5,852
85		1,647.8	1,240.8	13.9	122	20.5	5,985
86		1,781.9	1,283.8	14.4	131	21.5	6,451
87		2,027.0	1,423.8	14.3	145	22.1	7,675
		2,324.1	1,566.0	15.7	156	24.1	9,018

\* 1人當 畜産物 消費는 肉類消費와 鷄卵消費의 合計임.

〈표 2〉 配合飼料生産趨勢分析에 의한 需要推定

單位：千<sup>M</sup>/T

年 度	配合飼料生産量	前 年 比	備 考
1980	3,462	-	
81	3,491	0.8	
82	4,420	26.6	
83	5,852	32.4	
84	5,985	2.3	
85	6,451	7.8	
86	7,675	19.0	
87	9,018	17.5	
88(추정)	9,767	8.3	
89(예상)	10,245	4.9	



〈 표 3. 〉 '88년도 배합사료 생산추정

(단위 : 톤)

구분	'88년도생산량 (추정 (A))	'87년도생산량 (B)	전년대비 A/B (%)
양계	2,941,731	2,933,024	100.5
양돈	3,603,696	2,953,297	122.0
낙농	1,610,789	1,404,234	114.7
비육	1,509,243	54,207	90.2
기타	95,712	9,018,229	176.6
계	9,767,171	9,018,229	108.3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지난 1984년 미국이 과잉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PIK Program(식부감축에 대한 현물보상제도)을 발동한 이후 곡가상승으로 인한 수출국의 생산증가와 수입국의 자급노력으로 인한 세계곡물재고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세계곡물시장은 과잉재고에 시달리면서

수출국간의 출혈경쟁이 빈발했고, 이로인해 중공, 미국, 태국, 아르헨티나, 남아공등이 새로운 신흥곡물수출국으로 부상한 바 있으나, 곧 미국 곡물의 엄청난 힘에 눌려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남미의 주요수출국들은 사료곡물가격하락에 대응하여 환금작물인 대두등으로 전환시켰으며, 중공, 태국, 남아공 역시 곡가하락에 따른 외화수입의 감소로 인해 생산의욕이 감퇴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미국의 대한발은 그동안 누증되어온 세계사료곡물 재고량을 일시에 감소시키면서 곡가상승을 몰고왔고, 미국의 재고감소는 내년도 세계사료곡물의 수출여력과 가격추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즉 '89년도 사료곡물가격은 현재의 재고수준을 감안해 볼때 급격한 가격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와같은 사료곡물재고감소와 함께 '89년도 곡물가격의 강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대체 곡물의 부족이다. 지난 수년동안 옥수수과 함께 수수, 사료용소맥, 호밀등이 사료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수수 및 호밀, 사료용소맥등의 수출재고가 감소하면서 점차 옥수수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수년동안은 수출국간의 가격경쟁은 물론 곡종간의 가격경쟁도 격심하였으나 어제 이같은 곡종간의 견제기능이 약화되면서 강세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요인 말고도 내년도 미국의 사료곡물 생산량이 88년의 한발피해로 종자가 부실함에 따라 단위당수확량이 감소하여 크게 증가치 않으리란 것도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세요인으로는 수입수요의 약화와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증가전망을 들을 수가 있다. 즉 '88년도 미국의 대한발로 인해 미국의 사료곡물 생산량이 평년작의 30%이상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뷰셀당 3불이상의 고가권이 형성되었던 것은 불과 40여일로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조정국면을 맞았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준다. 이는 '88년의 경우 주요 수입국들이 조기구매로 비교적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탓도 있지만 대체로 수입국의 수요기반이 얇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같은 수입국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련 및 일본등 대량수입국들의 사료곡물 수입수요증가가 최근들어 정체국면을 보이고 있고, 개도국들의 사료곡물수입도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내년도 역시 사료곡물의 수입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내년

66

**'88년도의 대홍작으로 인해 사료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내년도 수확되는 주요 사료곡물생산량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99

도 사료곡물 가격형성에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88년도의 대홍작으로 인해 사료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내년도 수확되는 주요 사료곡물생산량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의 사료곡물의 경우 내년도 식부면적과 수확량이 커다란 이상이 없는 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태국, 아르헨티나, 남아공등의 사료곡물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밖에도 그동안의 사료가격추세로 볼때 대홍작이후 2년연속 홍작이 되었던 예가 없다는 것도 가격전망을 밝게보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상과 같은 강세요인과 약세요인을 종합해 볼때 내년도 사료곡물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가격선상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없이 '88년도의 고가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사료업체들은 앞으로 전개될 시장상황에 발맞추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원료 구매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양축가들도 앞으로의 생산원가부담을 감안하여 지나친 입식을 지양하고, 적정규모로 유지하여 축산물 판매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해나갈수 있는 축산경영을 계획해 나가야 할 것이다. ■